



제57차 경제포럼 강연 세계화와 한국 경제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는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계화에 맞는 시장 경제법과 제도·규율·관행들을 개선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 도덕 정신이 가능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셋째로 법 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오늘날 세계 전체의 흐름이 된 세계화(Globalization)가 오늘의 가장 큰 화두다. 이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올바른 전략과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IMF라는 국제기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을까? 세계화라는 큰 물결 흐름이 우리 사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우리는 IMF 위기를 겪었다.

올림픽 개최 후 이어진 무역 흑자로 달러가 유입되자 수출확대회의는 무역진흥회의로 이름이 바뀌고, 수출 독려국에서 갑작스레 수입 독려국으로 변화했다. 환율을 800원에서 600원으로 끌어내리고, 국민들은 해외로 달러 쓰러 다니고, 백화점에는 수입품들이 넘쳐났다. 1997년 11월,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위기가 온 것을 피부로 느끼고, 세계화와 경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

던 대통령이 IMF에 구제 금융 신청을 발표한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외국 기자들의 '너희 나라 외환 보유금이 얼마냐?'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무방비했다. 그 당시 세계화 물결이 흘러올 때에 개방을 하면서 금융 개방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를 개발하고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런 계획 없이 개방을 한 것이었다.

그럼 세계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세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세기 말,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여러 나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자본주의가 성숙해지고 꽃을 피울 때, 자유주의 정신에 의해서 기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세계로 진출을 했다. 그래서 그때를 학자들은 제1차 세계화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막 밀어닥친 세계화는 사회주의·공산주의 블록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블록이 '세계가 하나의 시장'(One single free market)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때도 정부보다는 기업에 경제의 자율성 쪽으로 힘

을 실어주는 흐름이었다.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 쪽을 끌고 가는 3가지 모델인 앵글로 색슨식 모델(영국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모델), 유럽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 일본식 모델이 경쟁을 했다.

우리는 그 중 80년대 승승장구를 한 일본식 모델을 교과서로 삼고 법규까지 그대로 베껴 왔다. 시기에 맞춰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포트폴리오를 짰다. 그런 스승인 일본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미국은 잘나가는 일본을 면밀히 연구했다. 레이건 대통령 직속으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절취부심 노력끝에 달라질 수 있었다.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철폐했기 때문에 IT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일어나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었다. 계속된 경제 성장과 물가안정이 동반되는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어떠했을까? 그 때 한국 경제는 오히려 외환 위기, 금융 위기를 맞이해 경제 위기에 처해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만 했다.

IMF는 돈을 빌려 주면서 공공 부분(정부의 구조 조정을 통해 공무원 수 감소,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 부분(경영의 투명성), 노동 부분(유연성 확보, 노동시장의 정리해고 가능화), 금융 부분(국제화 기준에 맞는 경영) 4가지 부분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 요구 내용들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가라.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펴라.'는 것이었다.

스승인 일본식 모델이 무너지니 우리도 같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3가지 모델 간

의 경쟁 중 앵글로 색슨식 모델이 힘을 얻었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IMF가 끝나고 한국 경제가 선택할 길은 이제 앵글로 색슨식 모델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에 서구의 저널리스트나 학자들은 '크로니 캐피탈리즘(Crony Capitalism - 정실 자본주의, 부패 자본주의)을 가지고 어떻게 영국식 자본주의를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기독교 유입의 역사를 예로 들며 가능성을 자신 있게 답했다.

동시대에 영국에서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주고 그 규제를 푼 대처가 수상이 되었다. 대처는 수상이 되기 전에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Minister of Thought' 라고 불리는 키이스에게 자유경쟁 시장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 대처 여사가 집권을 했을 당시 그녀는 영국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것 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몸





으로 배우고 수상이 된 것이다. 대처가 한 것은 작은 정부
그러면서 규제나 철폐를 완전히 없애는 그래서 작은 정
부로 가는 규제를 없애고 될 수 있으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위정척사라며 문호를 닫았고, 대외와 무
역을 하지 않고 계속 쇄국주의로 나아갔다. 하지만 일본
은 문호를 열고 메이지유신 및 부국강병 정책을 펼쳤으며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할 수 있
는 힘을 기른 것이다.

21세기 초, 지금의 주변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주변의 환경은 결국 4강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화를 반대하며 민족 공조나 외치고 또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해서 될 것인가?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 나라와 칠레 간의 FTA
협상에 5년씩이 걸려 겨우 체결되었다. 늦었지만 현재 미
국과도 FTA를 협상 중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연차
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협상 여하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세계화의 핵심은 영국식 모델인데 세계화의 특징들은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화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
을 통해서 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경제활동은 자율에 맡기
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확고히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자나 돈이나 사람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무한 경제시대의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국민소득
이 2만 불 이상은 되어야 한다.

싱가포르가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데 5년, 일본이 6
년 걸렸다. 우리 나라도 충분히 5, 6년 내에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못 가고 있다. 과거의 경제 개발 속도에 못

미치고 있다. 95년도까지 국민소득 1만 불 선으로 아주
빠르게 발전해 오다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1만
불대를 뚫지 못하고 이제 겨우 1만 불대를 넘어왔는데 이
것이 2만 불대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세계의 모든 흐름이 시장경제로 가는데 우리
는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선택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은 누구나 평등
하게 똑같이 잘 산다는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단지 실현할
수단이 없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는 이기적인 동물이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챙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열심히 하게 된다.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놓으면
세금으로 다 뺏어 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우리가 2만 불의 세계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첫째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시장 경제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데,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과서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시장 경제 속에서 번영했는데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반기업 정서와 기업 멸시 풍조로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된 데는 문화적인 요소도 있다. 과거 상업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고, 그 자제들은 과거도 못 보게 했다. 그러면서 자꾸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기업은 나쁜 놈이라 하며 기업 멸시 풍조를 조장했다.

오늘날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에 대해 어느 외국 장관은 한국 관리들이 반도체가 무엇인지 몰라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이것의 해결점 또한 기업을 많이 창업하게 하고 기업이 일 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되지 않으면 나라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나친 평등의식과 부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 많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배 고프는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다. 부자를 압박하고 부자를 핍박해서 부자를 못살게 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못 봤다. 아르헨티나가 2차 대전 전까지는 세계에서 5대 강국이었는데 페론이 나타나서 부자를 핍박하고 압박해서 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병원도 학교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 결과 오늘날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몰락하게 되었다.

그 다음 극복해야 할 문제가 포퓰리즘(Populism)이다.

정치인들은 항상 인기에 영합하려 하고 대중에게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뒤야 하고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펴려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되려면 윤리 도덕면에서 건전해야 된다.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뚫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 경영은 될 수 있는 데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정서법 위에 폐법이 있다. 그냥 폐만 쓰면 통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스님 혼자 머리 깎고 단식만 하면 국책 사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다.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이것 자체가 문제이다. 법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다. 사적 재산권의 보호,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세계화에 맞는 시장 경제법과 제도, 규율, 관행들을 개선하고 둘째는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 도덕 정신이 가능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셋째는 법 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시행될 때 우리는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는 선진국의 대열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화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유럽식 모델을 따라갈 때가 아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국부를 창출하고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나눠 가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생산 없이 분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을 도외시하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